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으며 다채로운 경축행사 진행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으며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와 모임들이 진행되었다.

지난 1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주제적인 군사사상과 전법, 비범한 명군술로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를 이룩하고 세기를 이어오는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안아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해설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지난 19일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위대한 승리의 전통으로 빛나는 7.27》이 인민문화궁전에서 개막되었다.

전람회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확인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정전협정문건을 검토하고 비준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비롯하여 지

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어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고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신 강철의 령장의 천출위인상을 보여주는 사진문헌들과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사회주의 수호전의 피어린 력사를 헤쳐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헌신을 보여주는 영상사진문헌들이 전시되어있다.

또한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상분출시험준비실태를 료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전략작사함 탄도탄 수송시험발사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시험사격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중요무기시험과 전략적목적의 발사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비롯한 영상사진문헌들이 전시되었다.

참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면 공화국의 성스러운 승리의 력사에 아로새겨진 철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공화국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리라는 철의 진리를 더욱 깊이 새기며 경애하는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승리의 전통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부흥강국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의지를 가다듬었다.

평양국제영화관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경축하여 영화상영기간이 21일 개막되었다.

영화상영기간에 각지 영화관, 문화회관에서는 수령과 조국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원수격멸의 성전에 용약 떨쳐나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한 조국방위자들의 위훈을 수록한 기록영화 《영원한 승리의 7.27》,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공화국기》, 《승리의 전통》 등과 《그들은 평범한 전사들이었다》, 《강호영》, 《군기》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예술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옥류전시관에서는 24일 뜻깊은 전승절과 더불어 우리 공화국의 긍지높고 자랑스러운 백성의 력사를 송엄한 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 보이며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가 개막되었다.

전람회장에는 유화 《진격의 길에서》, 아크릴화 《눈내리는 다박솔초소를 찾으시어》, 유화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은동지》를 비롯하여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명군술로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시었으며 세기를 이어오는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안아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상을 모신 미술작품들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또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날로 번모되는 공화국의 모습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전세대들의 불굴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가부흥의 전환적극면을 힘차게 열어가는 인민들의 투쟁을 담은 조선화 《화성저리의 불

야경》, 《평안단천의 선구자들》, 조선보석화 《리명수동의 밤》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도 전시되어있다.

이밖에도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경축 전쟁로병들과 로동계급, 직맹원들의 상봉모임, 전쟁로병들과 녀맹원군, 녀맹원들의 련찬모임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이 있었고 전승 70돐을 경축하는 직중중앙로동자애호선진대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기동애호선진대의 합동공연, 청년학생들의 전시가무대 《영원한 승리의 노래》, 농민맹중앙애호선진대와 농업근로자들의 경축공연 등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경축행사를 통하여 공화국인민들은 철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주체조선의 진승의 력사와 전통은 영원하며 전승세대의 고귀한 투쟁정신을 빛나게 계승하여 제힘으로 거기어 우라시 사회주의 부흥발전을 안아올 불같은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 다

인류사에 전승신화로 아로새겨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된 경축행사장들마다에서 빛나는 승리의 전통을 세기와 세대를 이어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어온 천만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드높은 환호성으로 메아리쳤다.

준엄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세기와 세대를 이어 련전련승해은 공화국인민이다.

전승세대의 후손으로서, 력사학자로서 철세위인들의 령도를 받는 공화국의 위대한 승리전통에 대해 피력해 보려고 한다.

* * 인류사에는 수많은 전쟁이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공화국인민이 벌인 지난 조국해방전쟁처럼 창건된지 2년밖에 되지 않는 신생국가가 지극히 절박한 포악하고 《최강》을 자랑하는 침략국가와 그 추종무리들을 상대로 싸워 위대한 전승을 이룩한 실례는 찾아볼 수 없다.

력사가 엄정히 기록한바와 같이 일거에 공화국을 병탄하고 자기의 지배권을 전 조선반도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에 확대하려던 미국은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당하였다.

청소한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과 그 추종세력을 타승하고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게 된것은 천하제일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처럼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비범한 명군술로 침략자들을 타승한 전설적령장은 알지 못하고있다.

즉시적인 반공격전, 제2적 후전선형성, 적국적인 진지방어전과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땅고사냥군조운동, 지적수조활동, 기동포병전 등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신묘한

전법과 전술들에 의해 전쟁이 일어났지 3일만에 서울이 해방되고 악명높은 미제살인장군들과 추종국가군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안해낸 《크리스마스총공세》, 《제한공세》, 《하기 및 추기공세》, 《금화공세》, 《신공세》는 여지없이 동지박산났다.

전쟁에서 참패를 모면해보려는 미제의 발악이 최절정에 달하였던 시기 최고사령부에서 진행된 추주기, 모란봉지하극장에서 진행된 전후복구건설전망전람회, 포화속에 태어난 무상치로제와 공장대학, 전선부대들에 조직된 화선휴양소, 포화속에서 진행된 군무자에술축전 등 가렬적절찬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꽃피던 가지가지의 경이적인 사변들과 일화, 조치들은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을 필승의 신념을 안고 원수격멸의 성전으로 떨쳐나서도록 추동하였다.

불세출의 령장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하기에 미국력사에서 항복서에 서명한 첫 채전장군인 클라크는 기자들에게 항복서에 수록한 만년필을 보이며 《그러나 난을 어떻게 하겠는가. 김일성장군과 맞섰는데 나팔레옹이 백이 있어도 조선을 당할수는 없다》고 말했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다던 아이젠하워도 《대가는 컸다. 이것은 비극적인것이었고 또 끔찍한것이였다》고 토설하였으며 미국의 출판물들은 《미국은 전쟁에서 패하여 슬픔에 잠겨있다》고 전하였다.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 조국해방전쟁에서 공화국인민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의 힘을 믿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떠선 군대와 인민은 그 무엇보다도 정복할수 없다는 철리를 력사에 뚜렷이



새기었다. 위대한 전승의 축포가 오를 때로부터 지금까지 흘러

온 70년은 공화국인민들이 철세위인들의 탁월한 령도따라 승리의 7.27을 지키고 더

욱 빛내어온 력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언젠가 지난 세기 50년

대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서 뉘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승이라면 비대한 힘을 믿고 설치대는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기만 한것은 영웅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반제반미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끝없이 빛내이신 회세의 천출명장이시다.

일찌기 유년시절부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의 길과 조국사수의 불바다도 함께 헤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 기간 비범한 지략과 무비의 단력과 배짱으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 해주셨습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승리상이 내려다보는 보동강가에 쇠사슬에 묶여 처박혀있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볼 때면 나는 깊은 감회에 잠겨곤 한다.

1968년 1월 신성한 우리 령해에 침입했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조선인민군 해군에 나포되었을 때 미국은 간첩선과 체포된 선원들을 놔주지 않으면 핵무기까지 사용하겠다고 으르렁댔다.

미제에 의해 새 전쟁의 구름이 밀려오고있던 그 엄중한 시기 미국놈들이 항복서를 내기 전에는 선원들을 절대로 석방하지 않겠다고, 배는 우리의 전리품이므로 나포한 미제의 무장간첩선을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후대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미국놈들에게서 빼앗은 간첩선이라고 말해주겠다고 선언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인민의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령도하시어 허세생각기를 부리던 미국을 무릎 꿇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고난의 행

군, 강행군시기 선군정치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드시고 공화국을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심으로써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갈수 있는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필승의 기상과 무비의 단력과 배짱,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민족사상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천하제일위인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현명한 령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불멸의 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고 7.28의 기적적승리, 《9월의 열핵폭풍》, 《11월대사변》과 주체조선의 절대적힘의 상징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과 《화성포-18》형의 탄생 등 민족사에 특기할 패승들을 다룬발적으로 기록하시였다.

정의와 평화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는 공화국의 초강세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총과산의 운명에 직면하고 이 땅에는 반미대승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고 있다.

세기를 이어 계속된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공화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공화국인민은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과 본태를 온 세상에 과시하며 영원히 승리만을 떨쳐갈 것이다. 만고철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어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것이러는것이 력사가 보여주는 만고의 진리이다. 력사학교수 박사 김은택